

보성복내중, 꿈·힘·멋 가득 담은 별 헤는 밤의 '작은 음악회'

교육공동체가 하나 된 비봉축제 열정으로 새해 맞이 학부모·형제·자매·동네 어른신들의 큰 호응 얻어

보성복내중학교는 지난해 12월 28일 밤 악기 방과후학교의 꿈·힘·멋 가득 담은 별 헤는 밤의 작은 음악회로 축제의 서막을 열고, 29일은 비봉 축제로 청춘의 한 문장을 가슴속에 깊이 새긴 감동의 하루를 보냈다.

관람하기 위해 온 학부모와 형제, 자매, 동네 어른신들이 감엽 예방 수칙을 지키며 코로나 19 이후 모처럼 아이들의 열정이 담긴 공연을 보며 환호했다. 작은음악회는 감성역량합양 1인 1악기 방과후 수업동안 지속적으로 꾸준히 배워 온 학생들에게 공연을 통해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또한 다음날 열린 비봉축제 1부 버스 운영은 학생자치회의 체계적인 회의를 통해 꾸려

져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로 즐거움이 배가되었다. 학생자치회의 봉어빵 코너는 학생들에게 봉어빵을 판매하여 전액 기부하는 의미 있는 코너가 되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2부 공연은 그 동안 보여주지 못한 끼를 발산하는 자리로 요가, 연극, 보컬, 댄스, 뮤지컬, 태권도 등의 공연이 펼쳐졌다.

특히 행사 전 사전 협의회를 통해 구성된 학생자치회의 전 스태프로 무대 진행의 안전과 원활함이 돋보였으며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작은 음악회 사회자는 충분한 끼를 발휘해 관람의 집중도를 높였다. 2부 공연 사회자는 학생들이 즐길 수 있도록 남녀 교사가 전문가 다룬 진행을 해 모두에게 기쁨을 선사

했다.

축제의 총괄 학생회장 조세연 학생은 "학생자치회가 열심히 준비한 버스를 잘 즐겨주어서 뿌듯했고, 모두 공연에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1년간 학생자치활동 중 찬란한 꽃인 축제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분께 감사함을 전한다."고 몽글한 감정을 전했다. 공연을 관람한 학부모들의 엄지척과 교장 문경애는 "너무 멋진 모습에 감탄했고 우리 보성복내중 학생들이 정말 사랑받고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은 2023년 새해 인사와 2022년 자신에게 칭찬하는 박수, 그리고 성장을 도와준 모든 분께 전하는 박수로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특히 중학 생활 마지막 축제를 마친 3학년 학생들은 아쉬움에 눈물을 보였고, 격려해주는 선생님들의 모습에 몽글함이 전해졌다.



비봉축제를 통해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창조하는 보성복내중 학생들은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축제 공연 모습은 유튜브 브에 업로드하여 시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함께하지 못한 학부모들의 아쉬움을 달래도록 하였다. 보성=김덕순기자

장성북일초, 텃밭활동·바나나 장터 운영



장성 북일초등학교 학생들이 1년간 학생자치회 활동을 통해 얻게 된 수익금을 마음나눔 성금으로 전달하였다.

북일초등학교 학생자치회는 텃밭가꾸기 활동과 바나나(바꿔쓰고, 나눠쓰고, 나부터 실천) 장터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MBC 희망 나눔 성금에 보내 따뜻한 마음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학생들이 직접 기르고 수확한 땅콩을 주변 지역민들에게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과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가져와서 판매하는 바나나 장터 활동을 통해 모금한 수익금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 학생들도 뿌듯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 기쁘다는 말을 전하였다.

장성=기동취재본부

순천 왕지초 왕지양상블, 호스피스 병동 위문공연 실시



순천왕지초등학교는 지난해 12월 29일 연말을 맞이하여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 왕지양상블 및 자율동아리 학생들이 순천 성가롤로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을 방문하여 위문공연을 진행하였다.

'2022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 왕지양상블 학생들 연말 봉사활동

왕지양상블 학생들은 1년간 꾸준히 배운 미니 하프 'over the rainbow, 나는 문어'를 연주하였고, 자율동아리 학생들은 기타로 '첫사랑, Last Christmas'를 연주하였다. 첼로와 피아노 협주 공연도 하였고, 마지막엔 왕지양상블 학생들이 하프, 첼로, 비올라, 피아노로 캐롤 메들리를 연주하면서 40분간의 공연을 마무리하였다.

순천 성가롤로병원 호스피스 병동 수녀님은 "환자분들이 거동이 불편해서 밖에 나와 공연을 관람하지는 못하셨지만, 안에서 귀로 다 들으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느꼈을 것이고 간

호를 하시는 보호자분들도 음악이 정말 위로와 힘이 됐을 것 같아요."라며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말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을 한 왕지양상블 학생은 "우리의 작은 하프 소리가 아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 힘이 되고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보람있었다. 그리고,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으며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하프를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고맙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순천=김승호기자

고흥백양중, '꿈 발표대회 프로젝트' 활동

고흥백양중학교 전교생은 지난해 12월 29일 2교시에서 4교시까지 오전 내내 꿈 발표대회 활동을 진행했다. 이는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관심을 높여 자신에 대해 성찰하고 이해하며,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꾸려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계획되었다.

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탐색하여 자신이 하고자 하는 직업을 설정하였으며 왜 그 꿈을 갖게 되었는지, 자신이 되고자 하는 직업은 어떤 특징과 장점이 있으며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또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공부와 과정이 필요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현재까지 노력한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등 다양한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광주시교육청, 학생 흡연·음주 예방교육 뮤지컬 공연 지원 사업 성료

학생 건강증진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한 학생 흡연·음주 예방교육 뮤지컬 공연 지원 사업을 성료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흡연·음주 예방교육 뮤지컬 공연을 통해 학생들이 약물 오·남용의 문제점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또 청소년기 흡연·음주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

와 흡연·음주의 권유와 강요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학교건강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 뮤지컬 공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10월1일~12월 30일 초등학교 20교, 중학교 15교, 고등학교 10교 총 45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학교에서 요청하는 일정에 맞춰 공연을 진행해 학교 현장의 호평을 받았다. 내년에는 사업 대상을 더욱 확대해 초·중·고·특수학교 65개교를 지원할 계



획이다. 김재환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